

간담회 vs 간담화...광주서 복합쇼핑몰 소모적 논쟁

국힘·이준석 정치 쟁점화

민주 “쇼핑몰 정치쇼 그만하라”

국비 예산 투입 안되는데 왜?

광주 대형복합쇼핑몰 유지 논란이 대선에서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2일 광주를 방문한 이준석 대표가 직접 참석해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복합쇼핑몰 유지 공동대응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연일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광주 지역 청년 창업자를 중심으로 한 간담회를 여는 등 '맞붙'을 놓으면서 '광주 복합쇼핑몰' 격돌을 이어 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불모지였던 광주에서 이번 대선 득표를 30%를 목표로 한 만큼 광주 민심을 잡기 위한 선거 전략 중 하나로 '광주 대형 복합쇼핑몰 유지'를 정치 쟁점화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국비 예산도 전혀 투입되지 않고, 특정 기업이 투자하는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인 만큼 광역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내용을 법한 공약을 지역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이를 연결고리로 민주당을 압박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의힘은 광주에 대형 복합쇼핑몰이 없는 것은 '호남 1당 독재'라며 연일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복합쇼핑몰을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복합쇼핑몰 유지 공동대응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광주 복합쇼핑몰 유지'를 희망하는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광주 뿐 아니라 2013년 순천, 2016년 전주, 2018년 완주, 2020년 익산·여수·무안 등 곳곳을 가리지 않고 추진 계획이 있었지



민주당 광주시당 청년선대위원들이 22일 오후 광주 동구 한 카페에서 최근 복합쇼핑몰 이슈에 대한 청년창업자와 로컬크리에이터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만, 단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상당수는 민주당이 지역에서 표를 상당히 많이 얻는 당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고 일을 처리한 정황이 있었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또 "민주당이 뜨끔해질 만한 광주복합쇼핑몰 2단, 3단도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호남에서의 치열한 정책 경쟁을 예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은 상권의 문제만 보고 있다. 대형 복합쇼핑몰 수요는 지역 식자재 마트 등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이 인식 못하고 있다. 대형쇼핑몰은 광주의 문화 거점, 가족들이 함께 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는 소득·자산 격차를 넘어서 경험의 격차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청년특보단도 다른 지역 복합쇼핑몰 주변 소매점·전통시장 매출이 올랐으며 복합쇼핑몰 유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청년창업자·크리에이터 등 광주 청년들과 더불어민주당 "광주 기언지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동구 한 카페에서 '2030 공동선대위원단, 광

주청년미래도시커뮤니티 간담회'를 열고 복합쇼핑몰 건립 논쟁에 대해 "표만 의식한 국민의힘의 '쇼핑몰 정치쇼'이며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청년창업자·크리에이터 등 청년들은 "복합쇼핑몰 유치는 지방선거에서나 나올법한 공약이고, 기업은 이익이 되면 투자할 것"이라며 "복합쇼핑몰의 유무로 도시의 발전을 평가하는 것은 편협한 생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호남을 격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속이고 편가르고 광주를 폄하 하는데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오프라인 매장과의 온라인 쇼핑몰에 강점이 있는 청년들을 연계한 광주형 상생 E-커머스 특구 조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 기언지 선대위 김태진 공동선대위원장은 "광주 청년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여러 의견을 경청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광주 발전과 광주의 자부심을 최우선으로 청년의 삶을 응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카페에서 열린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복합쇼핑몰 유지 공동대응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문 대통령 "우크라이나 주권·영토 존중돼야"

NSC·대외경제안보 연석회의

교민 안전 등 비상한 대응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 모두 발언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지역의 분리독립을 선포하고 러시아군을 투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은 존중돼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해가 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이런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즉각 러시아 제재에 나선 미국과 입장을 함께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으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평화를 지향해 온 우리 정부의 기존 원칙에 따른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NSC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의 무력충돌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혼란도가 증대되는 엄중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현지 교민의 안전이나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만큼 대통령이 나서서 대응을 지휘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대책과 함께 공급망 확보 등과 관련해 비상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거주 교민의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해 달라"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DJ 정신 잇겠다"...윤석열·이준석 전남 찾아 호남 공략

윤, 목표·신안 하의도 지지 호소

이, 흑산공항 조기 착공 약속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이준석 당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연결고리 삼아 선거 막판 호남 표심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윤 후보는 23일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와 생가가 있는 신안 하의도를 찾아 김 전 대통령 정신 계승 의지를 밝히며 민심 잡기에 나선다.

이준석 대표는 앞서 22일 호남 낙후의 상징과도 같은 섬 중에서도 신안 흑산도를 찾아 흑산공항 조기 건설을 내걸고 지지 호소하는 등 화력을 호남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흑산도에 마련된 유세차에

올라 "흑산공항 조기 건설에 힘을 보태겠다. 민주당과 경쟁하며 호남에서 경쟁하고 싶다.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제가 흑산에 온 이유는,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흑산공항 사업을 꼭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서"라며 "경제적 가치에 더해 흑산공항이 대한민국의 안보에서 차지하는 군사적 가치를 강조해 흑산공항 조기 건설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흑산공항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이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지만 있었으면 최소한 첫 삽을 떴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현 정부를 직격했다.

이 대표에 이어 윤석열 후보도 23일 전남을 찾아 김대중정신 계승 의지를 밝히며 호남 표심 결집에 나선다. 지난 16일 광주송정매일시장 유세에서 "호

남이 민주당 독점으로 나후됐다"고 민주당에 맹공을 퍼부은 지 1주일 만이다.

윤 후보는 23일 오전 전북 유세를 마치고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와 생가가 있는 신안 하의도를 잇따라 방문한다. 오후 1시 목포역 광장에서 "국민이 키워주신 윤석열, 목표의 눈물을 닦아 드리겠습니다"는 구호를 내세워 유세를 한 뒤 김대중 대통령 생가 방문길에 오를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성명을 내고 견제에 들어갔다. 전남도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호남 표를 얻기 위해 말로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평생을 노력해온 김대중 정신계승을 외치면서 행동은 거꾸로 해왔다"며 "사드 추가배치, 북한 선제타격 등 한반도 평화정착에 역행하는 안보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김형호 기자 khh@

대선 여론조사 브리핑

李 42.6%·尹 42.7%...0.1%p차 초박빙

한길리서치 조사...안 6.5%

다자 가상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한길리서치가 폴리뉴스 의뢰로 지난 19~21일 전국 성인 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이 후보가 42.6% 윤 후보가 42.7%로 불과 0.1%포인트 격차를 나타냈다.

같은 조사 기관이 쿠팡뉴스 의뢰로 지난 12~

14일 실시한 동일한 방식의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윤 후보가 0.3%포인트, 이 후보가 0.7%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6.5%,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는 1.6%,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2%, 새로운미래 김동연 후보와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는 각각 0.3%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유선(16.7%), 무선(83.3%) RDD(임의걸기)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7.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2021 수해 이웃돕기 모금 및 지원 결과 공고

소중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재해구호법 제28조에 의거한 공고입니다.

2021년 7월 발생한 장마로 인해 많은 이웃들이 막대한 재산피해와 상처를 입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힘든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건네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약 23억 원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수해를 입은 1,285세대에 국민 여러분이 모아주신 소중한 성금 13억 6천6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수해 이웃을 돕고 남은 9억여 원은 추후 발생하는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게 될 이웃들을 돕는 재난 준비금으로 사용됩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에 빠진 피해 이웃을 위해 정성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피해 이웃을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앞으로도 재난 피해 이웃들이 하루빨리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집 내역

모집 기간	2021.01.19. ~ 2021.12.31.
모집 금액	23억 1천800만 7천904원
모집 물품	1,000점

모집 경비

3천964만 5천700원 (모집금액의 1.79%)

지원 내역

지원 세대	1,285세대
지원 금액	13억 6천650만 원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모집금액이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일 경우 모집금액의 1.8%까지 모집비용으로 충당 가능

재난에서 희망으로!

후원문의

1544-9595
www.relief.or.kr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